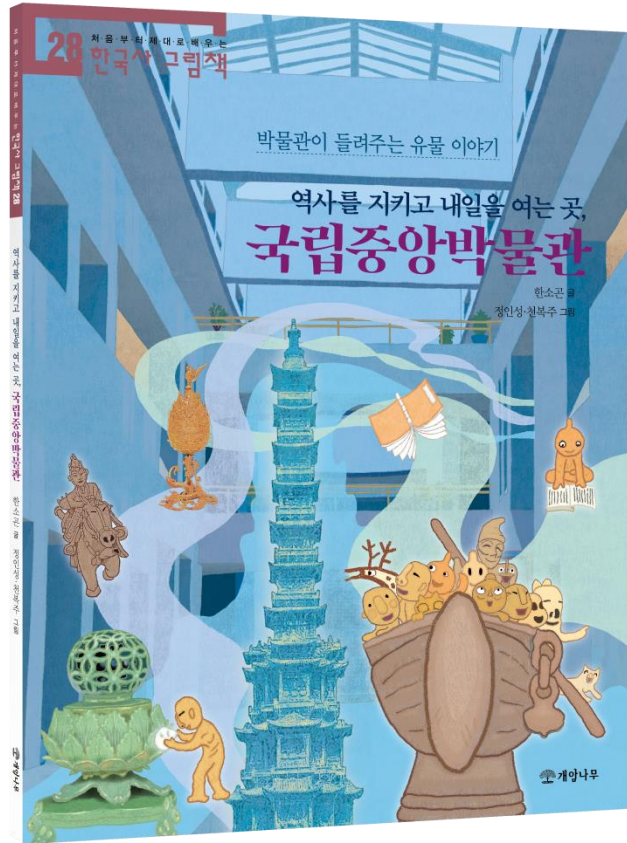


역사를 지키고 내일을 여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이 들려주는 유물 이야기



한소곤 글 | 정인성·천복주 그림 | 84쪽 | 핵심 주제: 한국사,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과거를 지키고 오늘을 밝히는 박물관,
미래로 나아갈 힘을 키워 주는 우리 모두의 역사 교실

국립중앙박물관을 화자로 삼아, 토우들이 박물관 곳곳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선사 시대부터 대한 제국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의미와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익힐 수 있습니다.

교과연계

3학년 2학기 국어-가 1. 경험과 관련지으며 이해해요

4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

4학년 2학기 국어-나 4. 책 속의 길을 따라

5학년 2학기 사회 1.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Q.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Q. 유물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짐작해 보세요.



Q.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물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박물관은 어디일까요?

국립중앙박물관

Q. 가야와 신라 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꺼묻거리로, 죽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는 소중한 물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토우

꺼묻거리: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함께 묻었던 인형이나 생활도구.

Q. 고기를 자르거나 가죽을 벗길 때 사용하는 구석기 시대 대표 유물은 무엇일까요?

주먹 도끼

Q. 조선 시대에 김정호가 손수 만든 전국 지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동여지도



Q.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으흑흑…….”

신라실을 빠져나왔을 때였어.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통일 신라 지도 앞에서 갑옷을 입은 장군이 슬프게 울고 있었지.

이 장군은 가끔 나타나 박물관 곳곳의 지도를 찾아다녀.

누군가 바라보는 걸 느꼈는지, 장군은 ①_____ 자리를 떠났어.

“누굴까? 왜 우는 걸까?”

장군이 사라진 쪽을 기웃거리며 화랑이 중얼거렸어.

(1) 장군은 누구일까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위해 힘쓴 김유신 장군

(2) 장군은 왜 지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 통일을 이룬 것에 아쉬움이 남아서.

(3) ①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슬그머니

힌트: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라는 뜻의 단어.

국립중앙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책을 더욱 깊이 이해해요!

Q. 책에 나온 유물 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만나 본 유물에 O 표시를 해요.



경천사 십층 석탑



주먹 도끼



빗살무늬 토기



기마 인물형 토기
(말 탄 사람 토기)



진흥왕 순수비



백제 금동 대향로



청자 상감
모란 국화 무늬 정병



대동여지도



경국대전



백자 달 항아리



청동 투구



금속 활자

Q. 오늘 만난 유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유물을 직접 그려 보고, 인상 깊었던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인상 깊은 유물

인상 깊은 이유

Q. 각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를 이어 보세요.



백제 금동 대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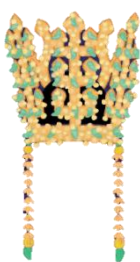
금속 활자



백자 달 항아리



주먹 도끼



금관

구석기 시대

고려 시대

신라 시대

조선 시대

백제 시대

Q. 사유의 방에 있는 두 반가 사유상을 비교해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일월식 보관 반가 사유상



삼산관 반가 사유상



(1) 두 반가 사유상은 각각 머리에 어떤 모양의 관을 썼나요?

일월식 보관 반가 사유상: 해와 달 모양

삼산관 반가 사유상: 산 모양

(2) 두 반가 사유상의 표정은 어떤가요?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다.

(3) 사유의 방을 관람한 소감을 적어 보세요.